**【욥기 3장25절】**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런데 두려움에만 빠져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입니다.

두려움이 다가올 때도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을 충성스럽게 따라다녔습니다.

그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큰소리를 쳤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문 지키는 여자가 베드로를 예수님의 제자라고 알아보자 절대 아니라고 부인합니다.

문지기 여종에게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신앙 고백마저 부인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베드로에게 두려움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때로 우리의 인생에 베드로와 같이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어쩌면 건강을 잃고 직장에서 내몰릴지도 모릅니다. 가정이나 사업에 위기가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면 불안해지면서 그 불안이 현실을 점점 지배하게 됩니다.

사람이란 원래 좋은 상상보다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두려움은 우리가 삶의 기반을 내 건강이나 직장, 인간 관계에 두기 때문에 생깁니다.

불완전한 것에 우리 삶의 기반을 두기 때문에 이런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기반을 세우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움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어떤 두려움이 있는지 마음을 살피고 믿음으로 두려움을 담대히 이기며 나아가는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